

대구 주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교황 주일)

2017. 7. 2.(가해) 제2058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김대건 신부님께서서는 15세에 세례를 받고 상해에서 사제가 되시어 작은 목선 하나로 망망대해를 건너셨습니다. 짧은 사제활동을 하다 26세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십니다. 관리들은 40차례의 문초 끝에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 물을 뿌리고 회를 발랐습니다. 여덟 번째 칼날에 목이 떨어질 때까지 죽음에 맞서신 기백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십니다. 아!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신 김대건 신부님! 순결의 흰 백함으로 피어나시어 저희를 이끄소서.
_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2역대 24,18-22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마태 10,17-22.

화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가장 앞선 조선인



한승훈 안드레아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초의 한국인 사제, 일 년이 채 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목활동, 모진 고문과 순교. 이 세가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1845년 8월에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1846년 6월에 관리들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그해 9월 16일에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당시에 가장 앞서 나가는 조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쇄국정책으로 인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김대건 신부님은 마카오로 건너가 가톨릭 신학을 통해 서양의 언어와 학문을 제대로 교육받은 최초의 조선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관리들의 요청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 영어로 된 세계지도 2매를 번역하고 지리개설서를 편술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한 관리들은 신부님에게 배교하고 나라를 위해 재능을 쓸 것을 권유했습니다. 세계제세와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으셨던 김대건 신부님도 종교의 자유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역설하시며 무너져가는 조선을 걱정하셨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신부님의 선택은 신앙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만약 신부님이 배교하고 재능을 나라를 위해 썼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인간이 꿈꾸는 좋은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셨고 순교로 그것을 증명하

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셨고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희생적 삶과 죽음을 통해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아직도 우리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선장만이라도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안타깝고도 확연한 사실은 저에게 리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리더(Leader)’란 단순히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상황에 따른 순간적 판단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처럼 짧은 사제생활 이전부터 보내셨던 영원한 가치에 대한 고민과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가톨릭교회의 리더이신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베네딕토 교황님 두 분의 결단과 희생을 묵상해봅니다. 역사상 최초로 은퇴교황이 되신 베네딕토 교황님의 결단과,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용기는 위기로 빠져드는 가톨릭교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정, 본당, 직장, 모임 등 크고 작은 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도 안에서 비추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필문**

희망의 선교사

조정화 율리엠타 수녀 |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뜨겁다!’ 건조기의 막바지, 이곳은 망고의 비를 맞이하며 숨 막히는 더위를 잠시 식혀줍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1950년 샬트르성바로수녀회 프랑스관구에서 선교하기 시작하여 1980년 아프리카대륙에 한국인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故)홍성자 베네딕도 수녀가 파견되어 지금까지 37년간 대구 샬트르성바로수녀회에서 수녀들을 파견하고 있

습니다. 현재는 교구 백주년 기념 선교 파견으로 대구대교구 사제 세 분이 방기대교구에 파견되어있고 저희 수녀 3명이 각각 밀림지역과 방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식을 나누는 저는 1995년에 소임을 받고 프랑스에서 언어 연수 후 1997년 6월 16일에 도착하여 끊임없는 내전과 함께 살고 있는 조정화 율리엠타 수녀입니다. 마지막을 몇 번이나 외치며 다신 돌아가지 않겠다며 삼 년마다 휴가를 왔지만 이 흑진주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보화를 찾으며 또 가고 또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수녀가 “너의 삶 자체가 이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데 안 돌아올 거냐?”라고 한 말이 하느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오늘도 희망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기와 우기, 두 계절이 있습니다. 연평균 38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건조기엔 입은 옷 위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도 쉽게 말라버릴 정도이고, 달걀을 양철 지붕에 얹어 놓으면 몇 시간 뒤에 반숙이 될 정도지만, 그늘에 들어서면 에어컨이 따로 없이 시원해집니다. 적도 바로 위여서 하늘은 너무 아름답고 밤하늘의 별은 내 손으로 따서 담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차를 달리다 보면 지평선이 바로 앞에 열린답니다.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오랜 내전으로 국민들은 너무 지쳐있습니다. 살 수 있는 집도 다 부서지고,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몇 년 전 이곳 방기대교구 대구교님이 대구대교구를 방문했을 때 놀란 것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전기가 있고, 수도꼭지에서 찬물 더운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둘째, 고속도로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것. 셋째, 아파트의 창문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는 것. 넷째,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루 세끼를 다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루 한 끼 잘 먹고, 병이 나면 의사로부터 제대로 진료 받고 약을 구하여 먹을 수 있고, 내전으로 학교가 중단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 전기와 수도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유엔군이 없어져도 치안이 안정되면 좋겠다고 모두들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바로 사도가 하신 말씀대로 만민에게 만사가 되어야하고, 무엇이 주어지든 “예.”라고 죽기까지 순명하신 우리 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함께, 함께 살아야 합니다. **평안**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느님

서광호 베네딕도 수사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수도생활 안에서 계속해서 불러주실 하느님께서 앞으로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제 성소 이야기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가 지금까지 부여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조금이나마 돌아볼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수도원에서 살다보니 삶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각자가 지닌 헌신과 봉사의 자세, 올바른 수도생활관, 영적성숙을 위한 노력(회개)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좋은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품된 수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수도자’라는 반석을 놓아야 사제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서원 가운데 ‘순명’과 ‘정주’ 외에 독특한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승답게 생활할 것(Conversatio Morum)’ 사실 이 서원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가장 뚜렷하게 수도자들의 신원의식을 고취시킨 서원이었습니다. 즉 현대의 수도자들은 서원을 거울삼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할 지를 성찰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저는 이 서원을 제 나름의 일생에 걸쳐 확실하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수도승답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합니지만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회두하고 기울어지는 것이 제 일생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서 사제로 살게 되면 이러한 일종의 ‘정진(精進)’을 통해 얻은 보화를 만나는 사람마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례는 받았으나 갖가지 이유로 냉담하게 된 신자들, 이 세상이 퍼뜨린 가시덤불에 숨이 막혀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싹 틔우지 못한 청년들, 가장으로부터 소외당한 중년의 여성신자들, 자식에게 학대당하는 노인신자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교육과 자립을 수도원 안에서나마(비록 제한적이지만)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공동체가 저를 어떤 방향으로 쓰실 지 알 수 없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주님의 도구로 살고 싶기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루카 1,38)”이라는 성구를 서품성구로 선택했습니다.

수도사제(성직수사)는 교구 사제들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성직의 직무는 수도원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에게 영적 유익함을 줄 수 있고, 형제들의 영적 쇄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기에 주어진 봉사이자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저희 수도원에 많은 신부님들이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고 계시며, 저도 거기에 끝까지 동참하고자 합니다. ‘성직으로 봉사하는 수도자’ 라는 짧은 문구 안에 제가 받은 주님의 부르심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실하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의 종신서원 성구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1요한 2,6)’ ‘참된 사람살이’를 할 수 있겠지요. **✠**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나라에도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듯이, 교회에도 신자라면 꼭 지켜야 할 교회법이 규정된 여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된 '요한 바오로 2세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1,752개조의 항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신자들의 의무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교회법 1247조)

미사는 그리스도 신자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의무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예수 부활 대축일(3월~4월경),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입니다.

둘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989조)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과 성탄 전에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사목상의 배려입니다.

셋째,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교회법 920조)

세례 받은 신자라면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자주 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자하는 열망이 생겨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앞서 제시된 위의 두 가지 의무만 잘 지켜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넷째, 교회가 정한 날에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251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단식과 금육을 통해 절약한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14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대축일이나 명절 등 별도로 용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육식을 금하고, 만18세 이상 60세까지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한 끼씩 단식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교회법 1262조)

모든 신자는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기 위해 교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익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059조)

그리스도 신자의 혼인은 반드시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자로서 혼인하려는 남녀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성사를 이루려면 혼인에 관한 교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



6.25(일) _ 만촌1동성당 견진성사
(10시 30분)



6.25(일) _ 다사성당 견진성사
(10시 30분)

교구 및 기관 행사

- 7. 3(월) _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 봉사자 연수 (10시, 교육원 다동 대강당)
- 7. 5(수) _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의 (19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6일까지, 한티피정의집)
- 7. 6(목) _ 3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야간) 4주차 (19시,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7. 7(금) _ 소공동체위원회 월례회 (11시, 교구청 별관 3회합실) / 2017년도 한국 평협 전반기 연수 (8일까지, 꾸르실료교육관) / 19기 청년리더십 (9일까지, 앞산청소소년수련원)
- 7. 8(토) _ 살레시오기자단 월례회 (15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 7. 9(일) _ 영남가톨릭교수회 파견미사 (10시 30분, 한티피정의집)



'가톨릭 은빛신문' 발행

가톨릭 은빛신문은
교구 노인사목 살레시오 기자단에서 만든
매월 첫 주일에 본당으로 배부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신문입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교황 주일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사제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⑥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교황 주일)

미 사 안 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3일(월) 19:30 꾸르실로교육관
밀알빛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7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7월 4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7월 5일(수) 19:00 용강성당

대리구 소식

2대리구 젊은이 기도 모임(Hello 하나님)

일시: 7.12(수) 19:30 미사 후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장소: 주교좌범어대성당 프란치스코성전

진행: 성바로팔수도회

준비물: 성경 / 문의: (010)2503-5185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기간: 7.7(금)~9(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대상: 선교 수도생활을 원하는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7.9(일) 14:00

장소: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과천 본원

문의: (010)8920-9423

베네딕도영성관 신약성경 통독 피정

복음서편: 7.13(목)~16(일)

서간편: 8.17(목)~20(일)

회비: 각 16만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예수회 성소 식별 피정 및 수련회

기간: 7.13(목)~16(일) / 16(일)~19(수)

장소: 여주 프란치스코수녀회 피정의집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성바로팔수도회 성소 피정

기간: 7.14(금) 저녁~16(일) 15:00

대상: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2503-5185

여름 잔꽃송이 피정

기간: 7.15(토)~16(일) 1박 2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상: 중·고등부 여학생

문의: (010)9286-2247

제31차 친구약성경 통독 피정(한글, 영어)

기간: 7.29(토)~8.6(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효령하늘집_개인 피정

밤기도: 매월 둘째주 목

산내 치유 피정: 매월 셋째주 화·수

시니어 피정: 격월 넷째주 화·수

지도: 정기모 신부 / (054)382-0091

한비아와 함께 걷는 한라산 둘레길 피정

기간: 8.16(수)~18(금)

장소: 제주 성이시돌피정의집

참가비: 30만원(항공료 제외) / 선착순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 캠프

기간: 7.21(금)~23(일)

장소: 충남 태안 살레시오피정센터

대상: 중·고 / 대학·일반(만33세)

참가비: 3만원

문의: (010)7427-4627 / (010)3894-1332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9.2(토)~15(금)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그리스, 발칸반도

(메주고리에) 등

경비: 내측 558만원, 발코니 588만원

문의: (02)780-0832 / www.ctour.org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제50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4(월)~8.14(월)

장소: 영국·아일랜드

세계 학생들과 연수·다양한 경험

후원: 카푸친작은형제회, 충주성모학교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0

곽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핵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교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낙지장어

낙지철판볶음 / 연포탕
 산아나고석쇠구이 / 장어매운탕
 40인 단체방 어린이놀이방 완비

T.053)941-7008 정창훈(안드레아)
 신암동 대구공고 네거리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Neome Skin Clinic **네오미피부과**

원장/피부과 전문의 이준호 시메온

소아, 난치 피부질환 클리닉
 명품레이저 보유

월성CGV 건너편 **T.053)656-0075**

NAVER 네오미피부과 검색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신랑각시 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원교(요안나) | 21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 강 검 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1~중2: 7.31(월)~8.2(수), 경주수련원
 중3~고2: 8.2(수)~4(금), 경주수련원
 고3·대학·일반: 7.19(수)~21(금), 한티
 대상: 예비신학교 등록생
 신청: 각 본당사무실 / 마감: 7.9(일)

교황청 시스티나성당 합창단 내한 공연

일시: 7.13(목) 19:30, 주교좌 범어대성당
 (초대석 외의 좌석은 당일 현장
 선착순 배부)
 주최: 천주교대구대교구
 주관: 대구CPBC / 문의: 251-2631

비다인의 날

일시: 7.22(토) 17:30~21:00
 장소: 삼덕성당
 대상: 비다누에바 수료자
 문의: 청년국, (010)4527-0400

교육 | 모집

상인성당 신앙 특강

기간: 7.5(수)~7(금) 20:00, 상인성당
 주제: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강사: 송재준(마르코) 신부
 (성서신학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문의: 639-1900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여름진학캠프

기간: 7.25(화)~27(목) 2박 3일

대상: 본교 진학에 관심있는 초6~중2
 문의: (054)338-0530

29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모집

출발일: 7.22 / 7.29 / 8.26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2017 대가대 후기 2차 대학원 신입생 모집

기간: 6.26(월)~7.7(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3(일반) / 850-3505~6
 (교육) / 660-5512~3(특수)
<http://www.cu.ac.kr>(모집요강 참조)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생법, 기타교실, 문인화(서예, 사
 군자), 성가반주법(평일미사·성령기도회)
 문의: 프란치스카눔, (010)9100-4114

2017년 마리아폴리

기간: 8.11(금)~14(월) 3박 4일
 장소: 경주 코모도호텔
 신청: 7.10(월)부터 선착순
 주최: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7.7(금) 17:30~9(일)
 4박 5일: 7.10(월) 14:00~14(금)
 8박 9일: 7.10(월) 14:00~18(화)
 에니어그램: 7.7(금) 15:00~9(일)
 문의: (031)946-2337~8

수지에니어그램

상설과정: 매월 둘째주 토 10:00~17:00
 심화과정: 수지에니어그램 Plus
 청소년: 자기본질의 이해, 성격강점검사
 가족수지 / 소그룹 피정
 문의: 남대영기념관 다음카페, 629-1117

채용 | 안내

대구요양원 조리원(계약직) 채용

대상: 자격증소지자, 경력자우대
 근무조건: 격주 5일 근무
 근로대우: 4대보험지급, 가족수당별도,
 시간외수당별도, 퇴직금별도
 마감: 7.4(화) 18:00 / 문의: 616-3110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장재웅(바오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발아정형외과
 발아플랜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전인병원
 동양의비전센터
 병원장 손기철 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상담문의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안수술 후, 암 재활도 전인병원
일반 검진 실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정 병원
 진료 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과, 한방내과, 침과과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 베스)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훈 (바오로)
 피부진료 아토피|알레르기|시미귀|타투|건선|무좀
 피부미용 여드름|홍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심암역 3번출구 T.053) 651-8800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어 010-2624-0322
 경산조폐공사 정문 앞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대구은행역 발아네거리 1번 출구
 국민은행 대우은행 본점
 코리아 알트만 (4F)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테리어 필름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대형선풍기 냉풍기 게르마늄 찜질기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전자관 1층 239호(대구 북구 유평단지로 45)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에페 6, 7)
 말씀을 기억합니다.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053-424-8525